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에 의한 기러기 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초기, 후기 청소년과 엄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윤은경 · 신성희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전임강사 · 동서간호학 연구소 연구원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Self-esteem and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on Depression in Mothers and Adolescents in Kirogi Families according to Adolescent's Development Stage

Yun, Eun Kyung · Shin, Sung Hee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Science ·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level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mother-adolescent (M-A) communication perceived by both mothers and adolescents between the early adolescent (E-A) group and the late adolescent (L-A) group; and to examine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self-esteem and M-A communication on depression in mothers and adolesc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107 Kirogi families who resided in the Midwest region of the U. 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008 to March, 2009 using the scales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elf-esteem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Results:** Mothers in E-A group reported higher scores on depression than mothers in L-A group. Adolescents in L-A group reported higher scores on depression and lower scores on self-esteem than adolescents in E-A group. In the E-A group, mothers' self-esteem had big actor effect on mothers' depression and partner effect on adolescents' depression. In the L-A group, self-esteem of mothers and adolescents had actor effect on their depression respectively without partner effect. M-A communication of mothers influences mothers' depression negatively and adolescents' depression positively. In both group, M-A communication influences their depression with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Conclusion:** To promote Kirogi families' mental health, programs for mothers and adolescents should be developed differently according to adolescents' development stage.

Key words: Kirogi family, Adolescents, Depression, Self-esteem, Communic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러기 가족이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가족이 국제적으로 떨어져 사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으로 아빠는 한국에 남아 생

계를 책임지고, 엄마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동반 유학하는 경우를 말한다(Kim & Chang, 2004). 이러한 가족형태는 자녀들만 유학생생활을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나타난 대안이다.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조기유학생들이 선택한 국가로는 미국(28.8%), 영국(7.8%), 호주(7.7%), 캐나다(5.0%), 뉴질랜드(4.7%) 등의 영어권 국가와 중국(26.5%), 일본(8.0%), 필리

주요어 : 기러기 가족, 청소년, 우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본 논문은 2007년 국제한간호재단 고촌 펠로우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The present study was supported by the 2007 Global Korean Nursing Foundation Kochon Fellowship.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Sung Hee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917 Fax: 82-2-961-9398 E-mail: sunghshin@khu.ac.kr

투고일 : 2010년 2월 24일 심사위원회 : 2010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0월 17일

핀(0.9%), 기타(10.6%) 등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08). 기러기 가족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조기유학생 통계나, 유학생급 통계 정도로 그 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MEST (2008)의 보고에 의하면 1998년 1,562명의 초중고 학생이 조기유학을 위해 한국을 떠났으나, 2000년 4,397명, 2005년 16,446명으로 급증하여 현재 10만 명이 넘는 초중고생이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독특한 구조의 기러기 가족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러기 아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Choi, 2006; Kim & Chang, 2004).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는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기러기 아빠들의 심리적 외로움, 가사 일의 어려움, 외도나 가족 간의 유대감 약화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를 살펴볼 때, 기러기 가족은 불완전한 가족 구성의 형태로 남편은 경제적인 면만을 책임지고, 아내는 홀로 자녀의 교육 및 총체적으로 변화된 생활환경 전반을 계획하고 책임져야 한다. 더구나 기러기 엄마는 언어의 장벽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우울은 중년 여성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정서이며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만성질환이 발생하게 되며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Kim & Shin, 2006).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며, 다른 나라의 여성에 비해서도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다(Park,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기러기 가족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이거나 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Kim, Choi, & Lee, 2005; Kim, 2009) 정도로 그들의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러기 가족의 자녀 또한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지적 발달, 정서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문화적 충격, 인종차별, 언어의 장벽, 새로운 학교 환경과 같은 조기유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Lee, 2009)에 더하여 동일시할 아버지 역할의 부재와 아버지를 대신하는 변화된 가족 역할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 (2007)는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조기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부적응과 학업실패로 중도에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우울 및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가운데 우울은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Lee, 2009). 청소년의 우울은 성인까지 지속되고 다른 정신과적 문제를

수반한다(Lee, 2009)는 면에서 기러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확대된 사회적 관계를 자유로이 형성하는 한국에서의 상황과 비교하여 언어와 교통수단의 제한 등으로 모-자녀 관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기러기 가족의 경우 청소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응 양상이 다를 수 있다. Montemayor (1982)에 의하면 청소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모-자녀의 상호관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부모-자녀 간의 의견 불일치는 초기 청소년에게 증가하며, 부모와 자녀의 20%가 서로 간의 관계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러한 초기 청소년의 모-자녀 관계 어려움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역할혼돈과 방황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준다(Ha, 2007). 그러므로 모-자녀 관계로 구성된 기러기 가족의 정신건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을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러기 가족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청소년을 자녀로 둔 중년 여성과 청소년 자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년 여성과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보고되었다(Kim & An, 2008; Lee, 2009; Lee, Chung, & Rhee, 2009). 많은 연구(Chung & Yuh, 2009; Kwahk & Kim, 2002; Kwon, 2008)에서 중년 여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높은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적응과 관련이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부적응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im & An, 2008),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Choi, 2007; Lee et al., 2009). 또한 엄마와 청소년 자녀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Min, 2003), 어머니의 우울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으나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mmen, Altman, & Brennan, 2004). 그러므로 모-자녀 간의 새로운 관계로 전환되는 기러기 가족에게 있어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엄마와 자녀의 우울에 중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 성적,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과 관련이 있으며(Lee, 2009; Park, 2007), 중년 여성의 우울은 직업, 남편과의 관계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Choi, 2006; Park, 2002). 그러나 본 연구는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하고자 하므로 모-자녀 상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으로 변수를 제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청소년의 응답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Choi, 2007; Kim & An, 2008; Lee et al., 2009). 또는 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쌍으로 수집하더라도 분석에서 부모와 자녀를 구분하여 한쪽의 특정 변인이 다른 한쪽의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Choi & Lee, 2008). 그러나 Kenny (1996)는 부모-자녀 관계의 주제는 부모나 청소년 어느 한쪽의 특성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상호 역동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의존성의 자료를 각각 독립적 자료 형태로 분석하면 영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제1종 오류를 크게 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의존적인 커플자료(dyad)는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APIM은 커플자료를 분석할 때, 개인의 특징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자기 효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상대방 효과)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아버지와 떨어져서 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는 여러 대인관계 중에서 제한된 환경 내에 있는 커플들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다. 이들의 자료가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료는 커플 단위로 수집되어야 하며 커플자료 분석(Dyadic analysis)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APIM 모형을 적용하여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의 엄마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러기 가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초기, 후기 청소년과 엄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Kenny (1996)가 제안한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Erikson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녀의 연령이 만 12-14세인 경우를 초기 청소년 집단, 만 15-18세인 경우를 후기 청소년 집단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집단의 기러기 엄마와 자

녀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모-자녀 의사소통 정도를 비교한다.

둘째,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집단의 기러기 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모-자녀 의사소통이 엄마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집단의 기러기 엄마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되었다. Kenny (1996)가 커플자료 분석을 위해 제안한 APIM 모형을 적용하여 기러기 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초기, 후기 청소년 자녀와 엄마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상대방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Figure 1과 같이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 각자의 우울이 상대방의 자아존중감, 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신의 자아존중감, 모-자녀 의사소통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신과 상대방의 우울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엄마와 자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에 의해 기러기 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이 초기, 후기 청소년과 엄마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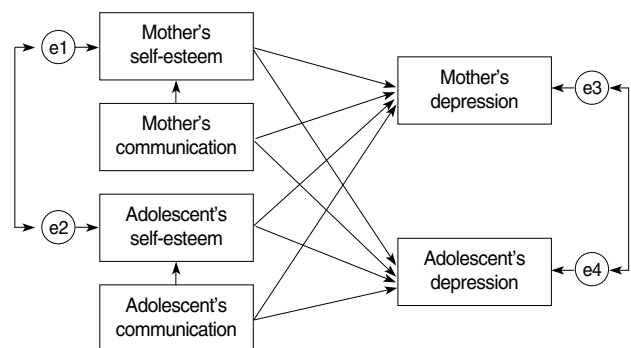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tical model.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미국 중서부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 중 기러기 엄마와 자녀 10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12-18세에 해당하는 엄마와 자녀로서, 둘째,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엄마와 자녀만 미국 중서부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셋째, 아버지는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따로 거주하는 가족이었다. 대상자 표집의 용이성을 위하여 눈덩이 표집을 통한 편의표집을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추천받은 총 118 기러기 가족 중 미국 내 기러기 가족 신분임이 노출되기를 꺼려하여 설문지 작성을 거절한 9 가족과 불성실한 응답 사례 2 가족을 제외한 총 107 가족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만 12-14세 자녀를 둔 초기 청소년 집단(57쌍)과 만 15-18세 자녀를 둔 후기 청소년 집단(50쌍)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 표본의 수는 각 집단이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인 G Power* 3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에 의해 medium effect size=.2, α =.05, power=.80이 확보된 최소 대상자 수(52쌍)에 가까우므로 안정된 수라 할 수 있다.

3.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였다. 먼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얻은 후 미 중서부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중소도시에 소재한 한인교회, 한인 학원 등 한인 지역사회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여 위의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소개받은 기러기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엄마와 청소년 자녀 모두가 연구 참여를 동의한 경우 개인적인 방문일정을 잡았다. 방문일정에 따라 대상자의 집이나 대상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엄마와 자녀 각각 20-30분이었다. 대상자의 연구 참여는 엄마와 자녀 모두 자발적이었으며,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과 수집된 자료의 비밀보장을 설명하였다. 질문지 작성 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다른 기러기 가족을 소개받았다.

4. 연구 도구

1) 우울

우울은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도

구(CES-D; Radloff, 1977)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평점 0-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엄마와 자녀의 우울 정도가 각각 심한 것을 의미한다. 문항평점 평균이 0.8 (총점 16)을 넘으면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우울을 의미한다(Radloff, 1977). 원도구의 신뢰도는 성인은 Cronbach's α =.85, 청소년은 .85 (Radloff, 1977)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엄마 .91, 청소년 자녀 .88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서 전반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eon (1974)이 번역한 자아존중감 도구(Self-Esteem Scale)를 이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평점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러기 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성인과 청소년 대상의 선행연구(Jeon, 1974; Min, 2003)에서 모두 적절한 수준이었으며(Cronbach's α =.77-.89), 본 연구에서는 엄마 .81, 청소년 자녀 .83이었다.

3) 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방향적 과정이다(Barens & Olson, 1982). 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arens와 Olson (1982)이 개발하고 Min (1990)이 번안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의 부모용과 자녀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엄마와 자녀에게 각각 측정하였다. Likert 4점 척도의 20문항으로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2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문항평점 1-4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엄마와 자녀가 각각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성인과 청소년 대상의 선행연구(Barens & Olson, 1982; Min, 1990)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으며(Cronbach's α =.73-.82), 본 연구에서는 엄마 .83, 청소년 자녀 .80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SPSS WIN 17.0 프로그램과 Amos 17.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은 기술적 통계와 Chi-square, t-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두 집단 간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우울, 자아존중감, 모-자녀 의사소통 차이는 다변량 분산분석(MANC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두 집단의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이 자신과 상대방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우울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경로분석을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 NFI, TLI, RMSEA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1.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집단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로 구성된 초기 청소년 집단 57쌍과 후기 청소년 집단 50쌍의 일반적 특성과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은 Table 1과 같다. 기러기 엄마의 학력은 두 집단 모두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에서는 60% 이상이 직업이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75% 이상이 학생을 포함하여 직업이 없었다. 학력과 직업에 대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남편의 수입을 포함한 가족의 연간 총수입은 후기 청소년 집단이 초기 청소년 집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9.95, p=.019$). 엄마의 평균 나이는 초기 청소년 집단 40.6 (± 3.6)세, 후기 청소년 집단 44.8 (± 3.7)세였으며, 미국거주기간은 각각 21.3 (± 20.1)개월, 34.6 (± 28.3)개월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01, p<.001$; $t=-2.84, p=.005$). 청소년 자녀의 경우 초기 청소년 집단에서 남자가 약간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딸자녀가 많았고, 학교성적에 대해 대부분이 중상위권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평균나이는 초기 청소년 집단 12.9 (± 1.4)세, 후기 청소년 집단 16.8 (± 1.4)세였다.

2.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집단의 엄마와 자녀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모-자녀 의사소통 정도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집단의 엄마와 자녀의 우울과 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between Young Adolescent Group and Old Adolescent Group

Variables		Young adolescent group (57 pairs)	Old adolescent group (50 pairs)	χ^2 / t	<i>p</i>
		n (%) or M \pm SD	n (%) or M \pm SD		
Mothers (N=107)					
Education level	\leq High school	3 (5.3)	3 (6.0)	0.51	.776
	Graduate university	32 (56.1)	31 (62.0)		
	>University	22 (38.6)	16 (32.0)		
Job in Korea	Yes	37 (64.9)	30 (60.0)	0.21	.645
	No	20 (35.1)	20 (40.0)		
Job in U. S.	Yes	14 (24.6)	10 (20.0)	0.32	.572
	No	43 (75.4)	40 (80.0)		
Household annual income (1,000 won)	\leq 59,999	17 (29.8)	10 (20.0)	9.95	.019
	60,000-79,999	18 (31.6)	7 (14.0)		
	80,000-99,999	11 (19.3)	20 (40.0)		
	\geq 100,000	11 (19.3)	13 (26.0)		
Age (yr)		40.6 \pm 3.6	44.8 \pm 3.7	-6.01	<.001
Length of stay in U. S. (months)		21.3 \pm 20.1	34.6 \pm 28.3	-2.84	.005
Adolescents (n=107)					
Gender	Male	34 (59.6)	25 (50.0)	1.00	.317
	Female	23 (40.4)	25 (50.0)		
Sibling order	1st	28 (49.1)	31 (62.0)	5.30	.071
	2nd	25 (43.9)	19 (38.0)		
	3rd	4 (7.0)	0 (0.0)		
GPA	Above average	39 (68.4)	41 (82.0)	5.11	.078
	Average	14 (24.6)	8 (16.0)		
	Below average	4 (7.0)	1 (2.0)		
Age (yr)		12.9 \pm 1.4	16.8 \pm 1.4		

자아존중감 및 모-자녀 의사소통 차이 정도를 엄마의 나이, 연간 가족 총수입과 미국 거주기간을 다변량 분산분석(MANCOVA)으로 통제된 후 비교하였다(Table 2). 엄마의 우울점수는 문항 평점 평균 3점 만점에 초기 청소년 집단 0.80 (±0.47)점으로 후기 청소년 집단 0.64 (±0.35)점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00, p=.035$).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 점수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의 경우 우울점수는 문항평점 평균 3점 만점에 후기 청소년 집단은 0.76 (±0.48)점으로 초기 청소년 집단의 0.44 (±0.2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99, p<.001$). 자아존중감 점수는 문항평점 평균 4점 만점에 후기 청소년 집단이 2.86 (±0.47)점으로 초기 청소년 집단의 3.18 (±0.5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33, p=.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 점수는 초기 청소년이 후기 청소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집단의 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신과 상대방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집단의 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신과 상대방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엄마의 우울, 자아존중감,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 자아존중감, 모-자녀 의사소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3). 초기 청소년 집단의 경우 엄마의 우울은 자신의 자아존중감($r=-.76, p<.001$)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엄마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

Table 2. Differences in the Level of Variables between Young Adolescent Group and Old Adolescent Group

Variables	Young adolescent group (57 pairs)	Old adolescent group (50 pairs)	F	p
	M±SD	M±SD		
Mothers (n=107)				
Depression	0.80±0.47	0.64±0.35	3.00	.035
Self-esteem	2.95±0.46	3.06±0.36	2.05	.112
Communication	2.96±0.35	2.88±0.45	0.39	.763
Adolescents (n=107)				
Depression	0.44±0.28	0.76±0.48	6.99	<.001
Self-esteem	3.18±0.50	2.86±0.47	4.33	.007
Communication	2.91±0.52	2.77±0.45	1.02	.385

Mother's age, household annual income and length of stay in U.S. were controlled by MANCOVA.

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r=.45,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청소년 자녀의 우울은 자신의 자아존중감($r=-.49, p<.001$), 모-자녀 의사소통($r=-.47,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r=.53,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엄마의 우울은 청소년 자녀의 우울($r=-.29, p=.033$)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엄마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자녀의 우울($r=-.37, p=.005$)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r=.29, p=.030$)과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후기 청소년 집단의 경우 엄마의 우울은 자신의 자아존중감($r=-.47, p=.001$), 자신이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r=-.46,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엄마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r=.29, p=.045$)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청소년 자녀의 우울은 자신의 자아존중감($r=-.57, p<.001$)과 자신이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r=-.32, p=.026$)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r=.57,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청소년 자녀의 우울은 엄마가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r=.31, p=.032$)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집단의 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신과 상대방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NFI, CFI, TLI, RMSEA로 평가하였다. NFI, CFI, TLI는 0.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음, 0.10보다 작으면

Table 3.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s for Measured Variables in the Two Groups

	MD	MS	MC	AD	AS	AC
Young adolescent group						
MD	1					
MS	-.76 (<.001)	1				
MC	-.23 (.086)	.45 (<.001)	1			
AD	-.29 (.033)	-.37 (.005)	-.09 (.528)	1		
AS	.01 (.916)	.04 (.781)	.06 (.683)	-.49 (<.001)	1	
AC	-.24 (.069)	.29 (.030)	.05 (.691)	-.47 (<.001)	.53 (<.001)	1
Old adolescent group						
MD	1					
MS	-.47 (.001)	1				
MC	-.46 (.001)	.29 (.045)	1			
AD	-.10 (.507)	-.10 (.510)	.31 (.032)	1		
AS	.02 (.882)	.25 (.087)	.06 (.699)	-.57 (<.001)	1	
AC	-.18 (.215)	.04 (.792)	.22 (.132)	-.32 (.026)	.57 (<.001)	1

MD=Mothers' Depression; MS=Mothers' Self-esteem; MC=Mothers' Communication; AD=Adolescents' Depression; AS=Adolescents' Self-esteem; AC=Adolescents'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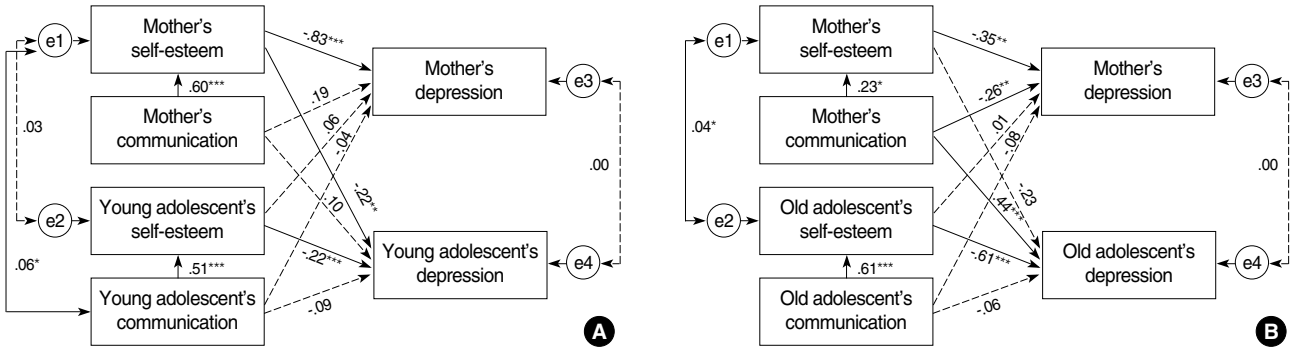


Figure 2. (A) Effect of the mothers' and adolescent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on depression in the young adolescent group. * $p < .05$; ** $p < .01$; *** $p < .001$. (B) Effect of the mothers' and adolescent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on depression in the old adolescent group. * $p < .05$; ** $p < .01$; *** $p < .001$.

보통을, 0.10 이상이면 낮은 적합도임을 의미한다(Hong, 2000). 초기 청소년 집단의 가설적 모형 적합도는 CFI=0.98, NFI=0.95, TLI=0.83, RMSEA=0.12로 TLI와 RMSEA가 낮은 적합도를 보여 수정지수를 근거로 엄마의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자녀의 모-자녀 의사소통 간에 공분산 경로를 추가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FI=1.00, NFI=1.00, TLI=1.19, RMSEA=0.00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수정모형으로 모형을 확정하였다(Figure 2A). 분석 결과, 초기 청소년 집단은 엄마($r = -.83, p < .001$)와 청소년 자녀($r = -.22, p < .001$)의 자아존중감이 각각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엄마의 자기효과는 상당히 컸다. 상대방 효과는 엄마의 자아존중감만($r = -.22, p = .004$)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엄마의 우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은 각자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자기효과는 없었으나 각각 자신의 자아존중감(엄마 $r = .60, p < .001$; 자녀 $r = .51, p < .001$)을 매개로 우울에 대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엄마의 자아존중감과 자녀가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과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 .06, p = .034$). 청소년의 우울은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자기효과와 엄마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상대방 효과의 크기가 동일하였다. 이 수정모형은 엄마의 우울을 59.9%,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41.8% 설명한다. 후기 청소년 집단의 엄마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신과 상대방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2B와 같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CFI=1.00, NFI=0.96, TLI=1.00, RMSEA=0.00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모형을 확정하였다. 엄마($r = -.35, p = .005$)와 청소년 자녀($r = -.61, p < .001$)의 자아존중감은 각각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청소년의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상대방 우울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없었다. 엄마가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r = -.26, p = .007$)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r = .44, p < .001$)가 반대 방향으로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을 매개($r = .23, p = .031$)로 자신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있었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신의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와 엄마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없었으나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매개($r = -.61, p < .001$)로 자신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엄마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모-자녀 의사소통보다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효과가 더 컸으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자기효과($r = -.61, p < .001$)가 상대방 효과인 엄마의 모-자녀 의사소통($r = .44, p < .001$)보다 컸다.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아주 약한 상관관계($r = .04, p = .035$)가 있었으며,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우울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 모형은 후기 청소년 엄마의 우울을 32.4%, 후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49.8% 설명한다.

논 의

본 연구는 APIM 모형을 적용하여 미국 중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초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 집단의 엄마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러기 가족의 정신건강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기러기 엄마는 두 집단 모두 평균적으로

학력이 높고 연간 가족 총수입이 높은 편이었다. 2007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3백6십7만 원(Korean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8)인 것과 비교하면 기러기 가족의 연평균 수입은 훨씬 높은 수준에 속한다. 또한 한국에서 엄마의 60% 이상이 직업이 있었으나 현재 미국에서는 75% 이상이 학생 또는 전업주부로 직업이 없었다. 이 중에는 미국에서의 신분 유지만을 위한 학생과 실제 엄마의 경력을 위한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과정 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학력과 좋은 경제적인 여건, 직장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삶과는 달리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남편과의 분거를 결정한 기러기 엄마의 우울 정도는 초기 청소년 엄마는 평점평균 0.80 (총점 16.0), 후기 청소년 엄마는 0.64 (총점 12.8)였다. 연구마다 엄마들의 우울 정도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40-50대 여성의 우울을 측정한 Park (2002)의 0.75 (총점14.9)보다 초기 청소년 엄마의 평균은 높은 편이었고 후기 청소년 엄마는 낮은 편이었다. 또한 Radloff (1977)가 제시하는 절단점(문항평균 0.8)으로 분석하였을 때 기러기 엄마 전체의 38.3%, 초기 청소년 엄마의 42.4%가 임상적 치료를 요하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두 집단 모두 40이 넘는다. 즉 기러기 가족을 선택하는 시기는 자녀의 청소년 시기와 더불어 엄마도 중년기로 들어서는 시기이다. Park은 중년기는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최대의 자존심과 가치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나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고, 다른 나라 여성에 비해서도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성은 자신 개인의 업적보다는 남편과 자녀의 성공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나 남편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역할 부족으로 돌려 죄책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기러기 엄마의 우울이 후기 청소년 집단보다 초기 청소년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와 함께 남편 없이 낯선 미국 땅에서 홀로 자녀의 교육 및 총체적으로 변화된 생활환경 전반을 계획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여성은 신체적으로 식욕부진, 피로감, 불면증, 체중 감소 등을 경험하며, 사회 심리적으로는 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결여되어 가족 내에서 역할 담당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거나, 심할 경우 자살까지도 이룰 수 있다(Kim & Shin, 2006). 특히 기러기 가족은 남편이나 친척 등 지지체계가 제한된 상황이므로 기러기 엄마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러기 엄마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요인

과 우울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남편과의 관계는 측정하지 않았다. 여성의 우울은 단순히 개인 요인과 자녀 요인뿐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라는 점(Park, 2002)과 기러기 가족의 선택이 자녀의 교육목적 이외에 부부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이기도 하다는 연구 결과(Choi, 2006)를 근거로 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기러기 엄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러기 엄마의 우울을 증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엄마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우울을 낮추는 자기효과가 컸다. 특히 초기 청소년 엄마에서 자기효과가 매우 컸다. 이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Kwahk & Kim, 2002; Park, 2002)와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역으로 남편의 부재로 인한 가중된 부모역할과 새로운 문화와 언어의 장벽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기러기 엄마로 하여금 쉽게 우울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러기 엄마가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이 엄마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청소년 집단에서는 직접적인 자기효과는 없었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신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후기 청소년 집단에서는 직접적인 자기효과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즉 후기 청소년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기러기 엄마일수록 자신의 우울이 낮아지는 자기효과뿐 아니라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우울이 낮아지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은 엄마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고, 후기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엄마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이들은 엄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러기 엄마의 우울을 위한 간호증재에는 초기 청소년의 엄마는 엄마 자신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후기 청소년의 엄마는 자신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Montemayor (1982)는 부모-자녀 간에 의견 불일치가 초기 청소년에 더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기러기 엄마의 경우 후기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러기 가족 중 청소년의 우울 정도는 초기 청소년의 평점평균 0.44, 후기 청소년의 평점평균 0.76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Kim과 An (2008)의 결과(남자 0.87, 여자 0.97)에 비해 낮았으나, 후기 기러기 청소년의 우울 정도는 초기 기러기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

진다는 선행연구(Choi, 2007)와 일관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후기 청소년이 초기 청소년에 비해 낮은 정도를 나타냈다. Park (2007)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자살사고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Mufson (2004)도 청소년의 우울은 자아발달의 혼란과 학교적응의 실패를 초래하고, 충동적 행동이나 공격성 등의 외현적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우울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 특히 기러기 가족 후기 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차이, 인종차별, 언어의 장벽, 압박한 대학 입시, 한국과 미국대학의 다양한 진학결과와 관련한 부모의 정보한계 등 조기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Lee, 2009)와 더불어 아버지를 대신하는 새로운 가족역할, 자신을 위해 떨어져 사는 부모의 희생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우울과 같은 부적응 정서를 더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조기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부적응과 학업실패로 중도에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보인다(Ha, 2007)는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게 해석된다. 그러므로 기러기 가족의 청소년 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중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모형을 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우울에 긍정적인 자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신의 우울을 낮추는 직접적인 자기효과는 없었으나,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우울 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Choi, 2007; Chung & Yuh, 2009; Kwon, 2008; Lee, et al., 2009; Park, 2007)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신의 우울을 낮춘다는 선행 연구(Choi, 2007; Lee, et al., 2009)와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만을 측정하였으므로 모-자녀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신의 자기효과뿐 아니라 기러기 엄마가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도 측정하였는데, 초기 청소년 엄마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우울을 낮추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자기효과뿐 아니라 자녀의 우울을 낮추는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 후기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는 데는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미치는 자기효과가 큰 것에 반해,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는 데는 초기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미치는 자기효과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미치는 상대방 효과가 같은 크기였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을 중재하는 지

역사회 및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시 초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뿐 아니라 엄마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후기 청소년의 경우 엄마가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이 엄마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의 방향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연구결과를 그대로 해석하면 후기 청소년의 엄마가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엄마 자신의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후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은 오히려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기러기 가족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 교육을 위해 남편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엄마에게 있어 제한된 대인관계 내에서 엄마의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집중되며 미국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채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하는 방식이 엄마 자신에게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인식되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자녀는 이를 간섭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들(Kim & An, 2008; Lee, et al., 2009) 대부분이 부모와 자녀 스스로가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과 각자 자신의 우울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상관관계 결과에서는 각자 자신이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신의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APIM 모형에서는 자신이 지각하는 모-자녀 의사소통과 상대방의 우울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가 기러기 가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후기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인지, 또는 의사소통 도구에 부모와 자녀가 반응하는 차이로 인한 것인지는 추후 한국에 거주하는 엄마-후기 청소년 자녀의 커플 자료를 수집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엄마의 우울과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과의 단순 상관관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변수들이 서로 통제된 상태에서 상호효과를 분석하였을 때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연관성이 있는 커플자료들은 변수들 간의 영향을 서로 통제된 상태에서 그 효과를 분석해야만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Kenny, 1996)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향후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본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개방적인 모-자녀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

다. 특별히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후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중점을 두되 청소년이 지각하는 개방적 모-자녀 의사소통과 엄마가 지각하는 개방적 모-자녀 의사소통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의 엄마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초기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뿐 아니라, 엄마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미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자녀를 이해할 수 있고, 미국학교에 대한 정보와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모-자녀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그동안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아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러기 가족의 연구 대상을 현지에 사는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에게 확대하여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제한된 환경 내에서 상호존중적인 기러기 엄마와 자녀의 자료를 커플 단위로 수집하고 이를 Kenny (1996)가 제안한 APIM 방식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특징이 자신에게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상대방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 셋째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기러기 가족의 우울을 증재하기 위한 경로모형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기러기 가족만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미국 내 서부 및 동부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엄마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이 초기, 후기 청소년과 엄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Kenny (1996)가 제안한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통해 비교하였다. 특히 초기, 후기 청소년과 엄마의 우울을 증재하기 위한 경로모형을 확인함으로써 기러기 가족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증재 방법이 달라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즉 기러기 엄마의 자아존중감과 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신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자기효과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상대방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러기 엄마와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효과적인 모-자녀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한다. 후기 청소년 자녀의 경우 모-자녀 의사소

통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자녀의 지각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므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러기 아빠와 엄마, 자녀 등 기러기 가족 전체의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가 인식하는 의사소통과 자녀가 인식하는 의사소통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 부재와 관련하여 기러기 청소년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성차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기러기 가족의 우울과 적응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에 따른 기러기 가족의 적응과 정신건강이 다르므로 미국 내 다른 지역과 영어권 국가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기러기 가족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aren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hoi, I. J. (2007).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611-628.
- Choi, S. Y., & Lee, J. M. (2008).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and adolescent's self-esteem on the adolescent's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 835-845.
- Choi, Y. S. (2006). The phenomenon of "geese-families": Marital separation between geese-fathers and geese-mothers. *Family and Culture*, 18(2), 37-65.
- Chung, M. J., & Yuh, J. (2009). Effects of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on children's affective problems and self-wor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71-83.
- Faul, F., Erdfelder, E., Lang, A.,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al Research Methods*, 39, 175-191.
- Ha, M. (2007, November 1). 'Kirogi' families weigh risks and rewards. *The Korea Times*. Retrieved February 10, 2010,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0&aid=0000046457>
- Hammen, C., Altman, T., & Brennan, P. (2004). Interpersonal impairment and the predic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 children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 571-577.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7.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 107-130.
- Kenny, D.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3, 279-294.
- Kim, J., & Shin, K. (2006). A study on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adul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4, 352-361.
- Kim, S. M. (2009). A qualitative study on wild goose mothers' everyday life, family relationship and social networking.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 41-59.
- Kim, Y. H., & An, S. M. (2008).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s' depression &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2), 1-31.
- Kim, Y. H., & Chang, O. J. (2004). Issue of families that run separate household for a long time. *Journal of Family Relatives*, 9(2), 1-23.
- Kim, Y. H., Choi, M. S., & Lee, J. H. (2005). Actual state of Korean "Geese mother" in New Zealand.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1), 141-152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A report of population and households*. Retrieved December 10, 2009, from http://kosis.kr/metadata/main.jsp?c_id=1962004
- Kwahk, S. H., & Kim, S. O. (2002). Depression and anxiety related with married women's attachment security and self-esteem: Focused on the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7), 35-48.
- Kwon, S. Y. (2008). Causal relations among perceived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6(2), 93-118.
- Lee, C. H., Chung, J. S., & Rhee, M. (2009).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depression: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 433-448.
- Lee, S. Y. (2009). Factors related to the depression of young Korean overseas students in U. S. *Korean Journal of Adolescence Study*, 16(5), 99-120.
- Min, H. Y. (1990). *Circumplex model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in, S. J. (2003). *The relations of parents-children's self-esteem and the necessity of parent's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Anyang University, Anyang.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Education statistics*. Retrieved February 13, 2010, from http://www.mest.go.kr/ms_kor/inform/info_data/cooper/1256539_8477.jsp
- Montemayor, R.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 1512-1519.
- Mufson, L. (2004). *Interpersonal psychotherapy for depressed adolescents*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Park, B.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 505-522.
- Park, H. S. (2002).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health promoting behavior, self-esteem, and optimism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1, 352-362.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